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82-91,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82
JCCT 2021-2-12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간 융합 타당성 탐구

Exploring the Validity of Convergence between Qualifications and the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김영준*, 권량희**, 도명애***

Young-Jun Kim*, Ryang-Hee Kwon, Myung-Ae Do*****

요 약 이 연구는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융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문헌의 수집 및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현행 추진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제도의 한계와 반성을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전문역량 경력개발경로 설계,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기반의 유관기관 재구조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자격 유형 고도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범주에서 자격의 가치와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측면을 비롯하여 결론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기반화 관점과 적용모델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분석되었다.

주요어 : 자격, 전문인력,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융합 타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erequisites for securing the convergence validity of qualific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method consisted of the procedur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and conducting expert meetings.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mitations and reflection of the current promo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establishing the academic foundation and concep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designing a career development path for the professional competency of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sabled. Also, Restructuring of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curriculu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enhancement of qualification types for nurturing professional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ere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value and function of qualifications are very important in the comprehensive category of developing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nclusively, the viewpoint of university foundation and the application model for nurturing professionals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viewed.

Key words : Qualification, Professionals,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upport system, Convergence validity

*정회원, 덕성여자대학교 연구원 (제1저자)
**정회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공동저자)
접수일: 2020년 12월 3일, 수정완료일: 2021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월 15일

Received: December 3, 2020 / Revised: January 5, 2021
Accepted: January 15, 2021
*Corresponding Author: helperman20@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Digital Univ, Korea

Ⅰ. 서 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개발에 있어 자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서 자격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실제로 보장받는데 필수적인 현실 기반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경로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담보할 수 있다는 데 역시 비중 가치가 크다.[1]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에 있어 자격은 자격 자체로만 기능적 의미와 활용 가치를 갖기보다는 동등한 범주에 의해 융합적으로 고려되는 교육과정 및 유관기관과도 맞물려 타당성과 활용가치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비중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의 법적 조항이 규정화됨으로 인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위의 일환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화제도가 거듭 논의되고 있고, 현행 구도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강사'나 '학습사'의 형태로 전문인력이 부분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화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자격화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위 자격화제도에 의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역량 수준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수준 역시 명확하고 타당하게 체계화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므로 다양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3]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자격화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되는 이유는 다양한 근거로 설명될 수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설치 및 운영 수를 넘어서 자격 양성 대상의 범주와 기준이 타당하게 정립되지 못한 한계점에 보다 큰 의미를 둘 수 있다.[4]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양성 대상 범주가 타당하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은 장애인평생교육의 공통 및 종합 수준에서 학문적 범주가 명확한 타당성으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한계로도 설명 가능하다. 장애인평생교육의 공통 및 종합 수준에서의 학문적 범주는 크게 '교육'과 '복지'의 관점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5] 두 가지의 관점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개발과 실천에서 협력체제화로 반영하는 절차적 방안은 중요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적 범주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변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다르게 두 가지의 관점을 무분별하게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범주에 반영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주요 요소인 자격을 비롯해 교육과정, 유관기관 차원에서의 갈등과 혼란은 깊은 딜레마의 수준으로 연속화될 수밖에 없다.[6] 두 가지의 관점이 상호간에 변별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중심으로 각 관점을 심화 응용 수준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와 연결되며, 각 관점에서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교육과정, 자격, 유관기관의 유형과 중복적인 경향성을 크게 초래하는 한계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위 한계는 현행에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자격화제도 상황에서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대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 교육과 복지 관점 및 분야가 공통적으로 반영되므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적 팽창은 이점이 되나 실제 인력 배치 및 활용을 비롯한 교육과정 운영 수준 및 유관기관 재구조화와 같은 정성적인 질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5]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자격화제도에 접근하는 분야는 특수교육, 재활상담(직업재활) 및 사회복지, (일반)평생교육 등의 정도로 고려되고 있으며, 위 분야에 해당하는 출신 대상이 자격 취득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의 주요 근거를 장애 특수성에 의존하는 정도로 자격화제도의 가치를 판단해 볼 수밖엔 없다. 이를 표면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였을 때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적 범주가 다양한 인접 분야(특수교육 등)에 의해 정립되므로 융합 학문 수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조망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고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인접 분야가 장애 특수성이란 한 가지 차원에서 융합화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능적 의미와 취지, 목적 등에 근거하여 일반평생교육을 비롯해 타 인접 분야와 대비된 특수성을 정립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7] 덧붙여,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성인기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타 인접 분야 중에서 특수교육을 일차적으로 우선순위화하는 절차 역시 장애인평생교육을 특수교육의 축소판(microplate) 정도로 한계화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화제도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종합적인 타당성 수준에서 정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대상이 교육과정 및 유관기관에 접근하는 전문 역량을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간의 정합성은 자연스럽게 재고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수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이 가진 본질적 맥락과 특수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 토대와 같은 학문적 범주 및 성격, 맥락의 특수성을 밝힌 연구 문헌은 거의 현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라는 근거 아래 자격, 교육과정, 유관기관 간 융합적 모델 도식이나 적용방안을 마련한 연구도 아주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난다.[4]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종합 수준에서 자격의 비중과 기능적 의미 및 역할을 이해하는 측면을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수준에서 전제되어야 할 구성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개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의 본질적 맥락과 특수성을 탐색하는 기반이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서 전제되어야 하며, 이 전제점 속에서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격의 기반과 비중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고찰하는 절차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입장에 따라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간의 정합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타당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제되어야 할 구성 조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 목적 및 내용으로 삼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여 '교육'과 '복지' 간의 관점에 대한 변별성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을 반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인·물적 자원을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화제도 기반이 갖추어야 할 개선방향 및 적용모델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도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개발에 있어 자격의 측면을 타당하지 않게 기준 및 제도화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전반에 걸쳐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는 이해도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현행에 추진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제도의 한계 흐름을 그림 1과 같은 관점으로 도식화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본론에서 모색하려 한다.

그림 1. 현행 추진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제도 한계 흐름도
Figure 1. The limit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그림 1의 한계적 흐름도는 융합화된 관점 맥락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림 2의 반성적 흐름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그림 1의 한계 흐름도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수준에서 자격을 비롯한 교육과정 및 유관기관 전반에 걸쳐 갖는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에서 네 가지 정도로 제시된 한계적 요소들은 상호간 융합적인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쟁점은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적인 고유 특수성과 실천적인 지원체제 정립을 위한 맥락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교육과 복지 관점으로 이분화된 양상을 가진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개발 형태와 절차가 장애 특수성에 주로 근거를 두고,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교수학습 이론 및 실제를 비롯한 일반평생교육 분야와 동등한 평생교육원론 및 운영체제 등에 근거를 두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특수성과 관련된 인접 분야(특수교육, 재활상담-직업재활, 사회복지 등)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접근하더라도 모방 수준의 융합 학문체제 경향성이란 한계를 최소화하기 어려

운 것이다. 종합적인 결과 차원에선 이상의 상황이 연속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타 인접 분야(특수교육, 재활상담 등)와 유사 중복된 경향을 띠게 되며, 최종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자격 역시 한계적인 수준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1의 한계 흐름도를 실제로 보완 개선하기 위한 반성의 일환으로 각종 대안요소를 마련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2의 반성 흐름도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자격 관점을 비롯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을 위한 특수성 요소를 상호 융합된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림 2와 같이 "학문-실천 근거", "평생교육 이론-실제 맥락", "장애 맞춤형 교육 범주", "전문인력 역량 수준" 등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세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자격의 융합 딜레마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현행의 '강사', '학습사' 수준의 자격 양성 경향성을 경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에서 제시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특수성 요소들을 상호간 맵핑하여 다음의 본론에서 다룰 전제조건을 연구 내용으로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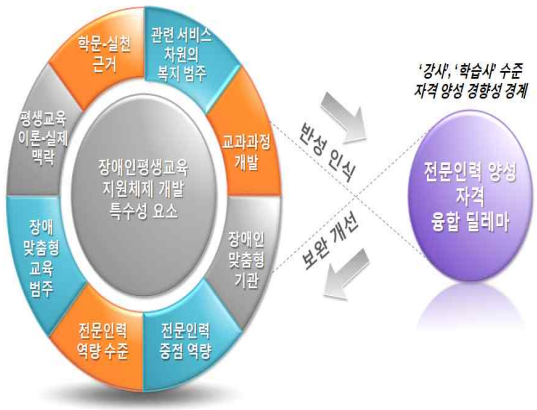

그림 2. 현행 추진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제도 반성 흐름도

Figure 2. Current promoting the reflex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disabled persons

II.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 분석을 기초로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문헌 중 '자격'의 관점을 모델화하거나 적용방안을 고찰 및 논의한 문헌을 위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1~8]. 문헌 분석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교육'과 '복지' 간의 관점을 타당한 분류 체계로 변별 활용하는 것이 자격화제도 기반에 적합하다는 관점 정도를 제시하는 동향을 보였다. 단, 일부 연구에 의하면, 대학기반화의 기능적 정의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자격화제도가 수립될 수 있는 절차적 방안과 모델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9]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통해 앞서 서론에서 고찰한 가운데 도식화의 일환으로 제시한 그림 1의 관점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화제도 기반이 일회적이거나 산발적인 연수 절차에 의해 구축되는 측면을 경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0] 이상의 문헌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면담을 통해 연구 결과의 내용을 구조화 및 분석하는 절차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전문가 5인(장애인평생교육전공 교수요원)가 문헌 분석의 결과를 참조하여 이를 보다 현장 맞춤형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취지로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대한 결과적 도식을 협업하여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회의에서는 앞서 제시한 그림 2의 도식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 내용의 결과적 도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III.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간 융합 타당성 전제조건

앞서 살펴본 그림 1을 비롯해 특별히 그림 2에 제시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특수성 요소(평생교육 이론-실제 맥락, 장애 맞춤형 교육 범주 등)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원에서 그림 3과 같은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 해당하는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간 융합 타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적용방안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범주에 한 가지 기반 요소가 되는 자격을 반영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외의 기반 요소인 교육과정, 유관기관과도 공통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히, 그림 3의 도식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을 위한 자격의 비중과 중요도를 강조하면서도 자격의 차원에 앞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범주에서 일차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 범주 정의를 마련하는 측면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출발점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자격의 양성 및 배치, 활용이 타당성을 담보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 제한적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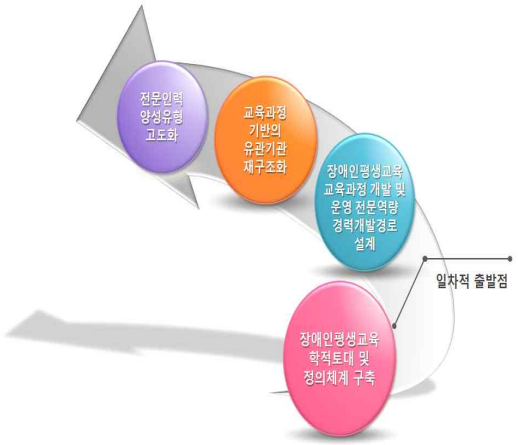

그림 3.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간 융합 타당성 전제 조건
Figure 3. Prerequisites for convergence validity between qualification and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1. 장애인평생교육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과 관련해 그림 4와 같은 도식을 마련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림 4의 도식은 자격의 의미와 차원에 앞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범주의 일차적 출발점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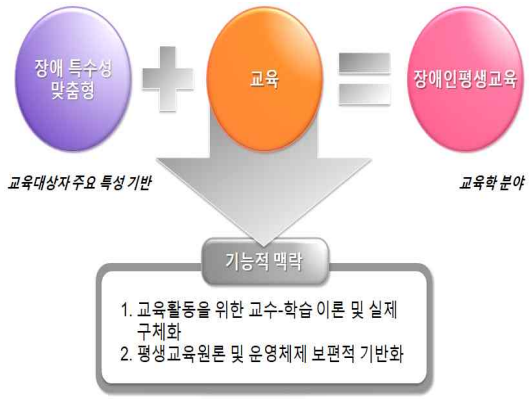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인평생교육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 도식
Figure 4. Establishment Design of the conceptual system and the academic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장애인평생교육은 용어의 표면상에 드러나듯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해당하며, '평생교육' 역시 교육이라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8].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을 '교육'과 '복지'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 대비해 봤을 때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장애인평생교육이 일반평생교육과 대비하여 '교육' 관점에 더욱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근거는 교육대상이 주요 학습 특성과 요구로 가진 장애 특수성에 있다. 그리고 이런 장애 특수성이란 근거로 인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은 일반평생교육의 현행 평생교육사와 대비하여서도 교육활동 실행 관련 전문역량의 수행에 더욱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와 정의체계를 특수교육의 축소판이나 연장판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 특수성에 근거한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앞서 평생교육의 공통 범주에 보편화되어야 할 기본적 맥락을 가지기 때문이다[9].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는 특수교육을 기초 융합 기반으로 하여 심화 응용한 성격과 맥락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에는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원론 및 운영체제 보편적 기반화"에 있다. 그리고 그림 4의 도식에 위 기준과 함께 제시된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이론 및 실제 구체화"는 특수교육에 앞서 장애인평생교육 자체가 교육학이란 학문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적 맥락과 기준이라고 여겨볼 수 있다. 여기서 특수교육은 참조

기반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상의 측면을 상기해 본다면, 자격의 관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대상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강조된다. 현행과 같이 '강사'나 '학습사' 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한계적 인식이 동기화될 수 있으며, 장애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인접 분야(특수교육, 재활상담, 사회복지 등)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자격 양성 구조체계(사회복지사 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역시 비판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종합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의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화제도 기준을 위해 주요하게 반영해야 할 인접분야로서 특수교육에 비중을 크게 둘 수 있으며, 특수교사 양성 위주의 특수교육 인프라 기반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어떤 절차와 방안으로 모델화되어야 하는지도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이 교육학 분야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과 교육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현행의 다양한 인접분야를 기반으로 한 '강사', '학습사' 수준의 단기적인 전문인력 양성 상황은 다시 반성 및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일환으로, [10]의 연구는 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현행에 편성·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연합 및 협동과정으로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개설하는 적용방안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 포용된 관점에서 [9]의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의 특수성에 의한 특수교육에서 뿐 아니라 일반평생교육원론 및 교수학습론을 보편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교육학과에서 역시 장애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역량 경력개발경로 설계

앞서 살펴본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은 교육활동의 실행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중점 맥락 가운데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이 타당하게 정착화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9][10]

그림 5.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역량 경력개발경로 설계 도식

Figure 5. Schematic design of career development path of professional competenc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sabled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 양성과 관련된 교육 중점 전문역량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의미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와 정의체계가 교육학 분야란 범주에 해당하므로 전문인력의 역량 수행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측면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일반평생교육 기반의 현행 평생교육사에 대한 요구 전문역량이 운영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장애인평생교육 기반의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 전문역량은 교육활동의 실행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8] 이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전문역량은 장애인평생교육이 교육학 분야라는 관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근거화시켜 주는 주요 기반이 되며, 장애인평생교육이 일반평생교육과 상호 공통되고 동등한 평생교육의 맥락을 가지면서 고유의 변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역시 된다. 그림 5에 제시된 각 전문역량들(학습스타일 사정, 교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은 자격 양성 대상에 있어 단기적으로 개발되어 자격 수준으로 인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경력개발경로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인 적용 절차를 따를 필요

가 있다.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의 영역이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학력보완 및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교과교육화될 수 있으며, 각 교과 영역별로 그림 5의 전문역량이 수행될 수 있는 절차와 맥락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역량에 대한 자격인증 기준은 장기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평생교육의 현행 평생교육사 관점과 달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은 교육대상인 장애인의 교과과정을 실제 개발 및 운영 지도할 수 있는 측면이 일정 부분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실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 전문역량별 수행 능력단위가 표준화되는 차원 역시 요구된다. 현행의 구도에서 '강사'나 '학습사'의 수준으로 양성되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은 특수교육 관련 지식 및 기술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그림 5의 전문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실제 현장에 베치되어 전이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못한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 대안으로 그림 5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교육(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점 전문역량에 더하여 3단계의 경력개발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히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동등한 범주의 교육 중점 전문역량이라도 상대적인 비중도가 높고 낮은 전문역량으로 분류화될 수 있다. 덧붙여, 장애인평생교육 현장 전문가 교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그림 5에 제시된 3단계의 경력개발경로는 주요한 수행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5의 도식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자격 관점과 더불어 종합 범주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적용방안 및 모델에 해당하며, 현행에서 '강사'와 '학습사'의 형태와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양성되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반성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3. 교육과정 기반의 유관기관 재구조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이란 자격이 종합 범주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와 타당한 정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전제조건(장애인평생교육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 등) 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6].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와 정의체계가 교육학 분야에 해당하므로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은 교육과정 기반에 보다 충실해야 하며, 현행의 운영 구도에서 일회적 경향의 프로그램 단위로 조직적 설치·운영 형태를 유지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일환으로 그림 6에서는 교과교육 중점 여부와 프로그램 중점 여부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설 포함)의 구조체계가 분류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관별로 부합하는 중점 여부에 따라 재구조화한 후 종합적인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이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에 기반하여 특수성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입장이 재고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자격 유형 및 수준이 현행의 구도에서와 같이 '강사'나 '학습사'의 형태로 정립되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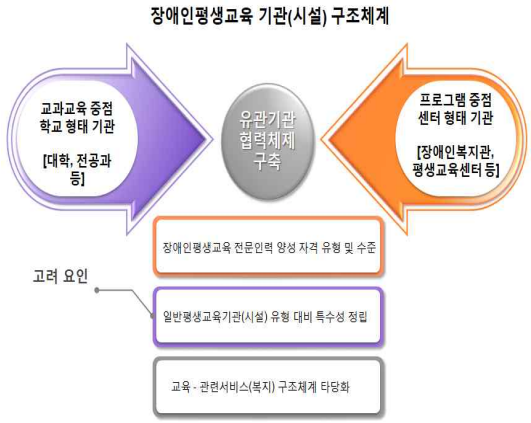

그림 6. 교육과정 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재구조화 흐름 도식

Figure 6. Restructuring flow design for the related institu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ased on curriculum

다음으로, 그림 6과 같은 흐름으로 교육과정 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재구조화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관점에서 그림 7과 같이 실제적인 딜레마가 초래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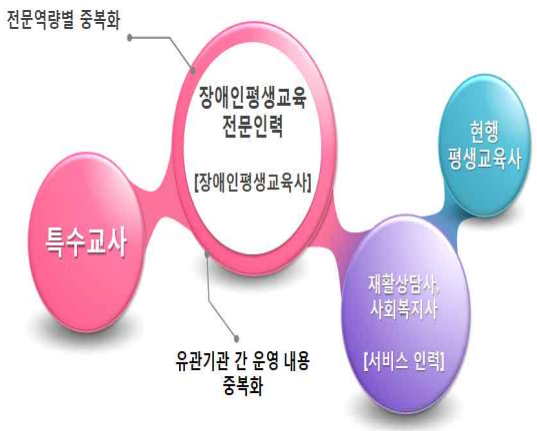

그림 7. 현행 추진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양성 한계적 상황 도식

Figure 7.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plan for fostering the qualific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그림 7과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은 인접분야의 전문인력과 전문역량 면에서 유사 중복된 경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유관기관 차원에서는 운영 내용 면에서 유사 중복된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에 기반을 둔 맞춤형 관점에서 교육과정 기반의 유관기관 재구조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6의 절차 뿐 아니라 현실적인 수반 요소가 그림 8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8은 그림 6을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실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 및 양식이다.

그림 8.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기반 유관기관 재구조화를 위한 수반 요소

Figure 8. An accompanying element for restructuring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sabled

또한, 그림 8에서는 특수교육에서부터 재활복지에 이르는 인접분야와 대비된 장애인평생교육의 「교육」 중점 특수성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전문인력 양성 유형 고도화

앞서 살펴본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종합 범주에서 자격 관점이 보다 타당한 현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림 9와 같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형 고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그림 9의 도식은 앞서 살펴본 그림 6의 교육과정 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재구조화를 현실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수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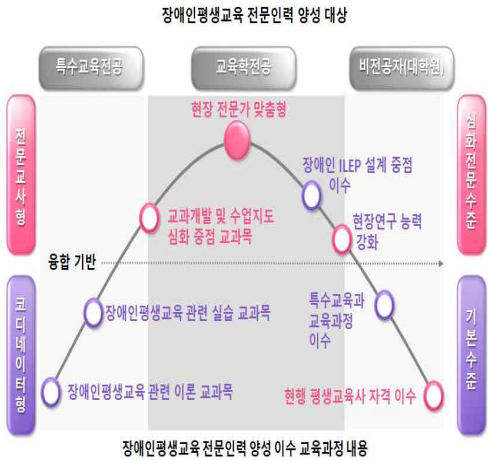

그림 9.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형 고도화 도식

Figure 9. A Schematic Design for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그림 9에서는 그림 6의 도식 관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유형을 「코디네이터형」과 「전문교사형」과 같이 두 가지로 반영하고 있으며, 두 가지의 유형을 상호 융합적으로 연계화시키고 있다.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구도에서는 코디네이터형이 현실적인 적합성을 가질 수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를 비롯한 교육대상인 장애인의 학습 수요 및 특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코디네이터형에 이어 전문교사형 역시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란 종합 범주가 교육학적 실천 맥락과 성

격 차원에서 타당성을 유지할 때 전문교사형의 자격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에서는 각 자격 유형별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이수 교육과정 내용을 간략 요목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결과 내용은 [9][10]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가 종합적 차원에서 중요시한 부분은 자격 양성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교육학 전공자와 비전공 출신자이면서 특수교육전공 및 교육학 전공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하는 자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가 일반평생교육과 동등한 범주에서 평생교육원론의 보편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현행 평생교육사 자격 이수를 융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교사형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는 만큼 교과개발 및 수업지도 심화 중점 교과목이나 장애인 ILEP(개별화평생교육계획) 설계 중점 전문 내용을 이수하는 등의 적용방안도 반영하였다. 따라서 전문교사형은 코디네이터형의 기본 자격을 취득한 대상이 장애인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심화전문 수준에서 자격을 인증받는 형태로 정의된 것이다. 단적으로, 앞서 그림 5의 도식에서 살펴본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역량 경력개발경로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의 자격 유형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자격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간 융합 타당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총 4가지로 모색되었다. 첫 번째의 전제조건으로 모색되었던 “장애인평생교육 학적토대 및 정의체계 구축” 부분은 나머지 3개 전제조건에 대해 암묵적이면서 보편적인 수준에 의해 일차적 출발점의 가치를 가진다. 첫 번째의 전제조건이 어떤 관점과 내용으로 타당성을 구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머지의 전제조건에 대한 적용방안 역시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4][11]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모색된 네 가지의 전제조건은 그림 10과 같은 관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이 일반평생교육, 특수교육과 상호간에 어떤 구조체계로 융합화된 학문, 실천 근거를 마련하는가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세부적인 요소로 중점을 둔 ‘자격’ 등의 지원체제가 타당하게 정립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결론화되어야 하겠다. 그림 10의 도식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한 일환으로 이를 주관할 리더십의 주체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학문·실천 구조체계를 어느 주체가 주관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키며, 이는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R&D 자원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는 ‘대학(university)’이 대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학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범주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합 범주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요소인 자격 등을 실행 관리하는 적용방안과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10과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학문·실천 구조체계가 교육학전공 및 특수교육전공 단위를 포괄하므로 대학의 특수교육과(교육학과 포함)에서 편성 및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협동과정(연합, 융합전공)의 일환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양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앞서 그림 9의 도식을 통해 그 가능성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학문·실천 구조체계
Figure 10. Structural system of academic and practice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그리고 그림 10의 도식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에 있어서 자격을 비롯한 교육과정, 유관기관에 이르는 융합의 관점에서 그림 11과 같은 도식적 관점을 시사한다. 그림 11의 도식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에 있어 대학의 리더십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어떤 구조로 추진하는 가운데 타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에서는 앞서 제시한 그림 10의 도식에 기반을 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기반을 활발히 구축 및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3]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구 부처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대학기반화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양성 대상이 다양한 유관기관에 균형적으로 배치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후속적으로, 그림 11의 도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양성이 갖는 이점과 기대효과가 다양한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보다 확장되고 세부적인 적용모델이 활발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 등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요소가 대학 리더십에 의해 내실화 및 정착화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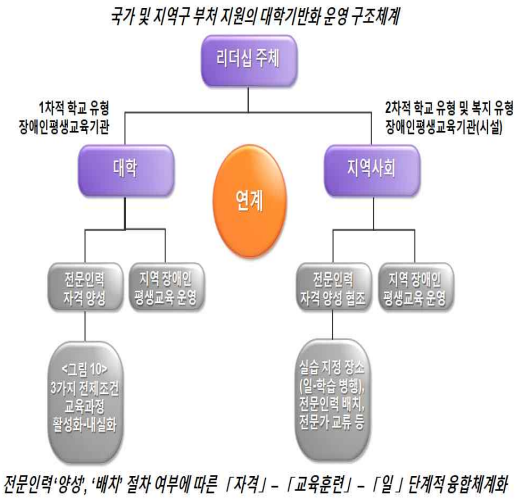

그림 11.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양성과 대학기반화 간 종합 지원체제 강화 적용 모델

Figure 11. A model for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nurtur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for establishing a university

References

[1]. S. S. Kim, A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of Aging Society, Future Education, “Future Education Society.” 9(1); 1-23, 2019.

[2]. Y. J. Kim, A Basic Study for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raining Vocational Coordinators for the Disabled Based on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The Journal of Integrated Curriculum Research.”, 11(3); 19-42, 2017.

[3], J. Y. Kim,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2(1); 65-92, 2016.

[4], J. Y. Kim, Execution of the 4th Master Plan for Life-Long Education & the Direction and Task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4(2); 1-28, 2018.

[5], S. W. Kang,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from exclusion to inclus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Research.”, 19(1); 55-84, 2013.

[6], H. I. Park, The Task of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From the Il-Shim Perspective, “Lifelong Learning Society.”, 14(1); 25-47, 2018.

[7], E. A. Park,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5(2); 111-135, 2019.

[8], E. H. Kim, A Thought on the Practic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Fields: Focusing on the Practice based on SRV,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5(2); 1-24, 2019.

[9], Y. J. Kim,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Fostering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Vocational and Qualification Studies.”, 7(1); 187-213, 2018.

[10], Y. J. Kim, The Establish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Based on Department of Education: Based on Curriculu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3); 1495-1510, 2020.

[11], Y. S. Jung, A Study on Transition Service based Lifelong Education Implementing Experience for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ed on Grounded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28(1); 1-27, 2018.